

허술한 수비·무기력 공격...이범호 감독 뿔났다

KIA, 실책·불펜 난조·주루사...안일한 플레이에 '3연패' 기록
“올해 끝 아닌 새로운 시작...매 경기 최선 다하는 마인드 필요”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한다.”

KIA 타이거즈의 이범호 감독이 이례적인 미팅을 통해 큰소리를 냈다.

KIA는 지난 17일 한화와의 홈경기에서 2-6으로 지면서 3연패에 빠졌다. 결과도 결과지만 과정도 좋지 못한 패배였다.

제임스 네일의 팔꿈치 부상 여파로 김건국이 대체 선발로 출격했고, 결과는 2.3이닝 6피안타 1탈삼진 5실점의 패전 투수였다. 5점 중 김건국의 자책점은 2점이었다.

하위권에서 고전하고 있는 KIA는 실책에서는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날 경기에서도 2개의 실책이 추가됐다.

1회 중계 플레이 과정에서 위즈덤의 포구 실책이 기록됐고, 3회에는 김선빈이 평범한 플라이타구를 놓쳤다.

이 실책은 모두 실점으로 연결됐다. 1회 실책 상황에서는 2루 주자 리베라토가 3루로 이동한 뒤 문현빈의 우중간 안타 때 홈에 들어왔다. 3회에는 2사에서 실책으로 이닝을 마무리하는데 실패했고, 노시환에게 투런포를 맞았다.

공격도 무기력했다.

류현진을 상대로 최형우가 0-1로 뒤진 1회말 동점 2루타를 기록했고, 1-5로 뒤진 3회에는 박찬호가 솔로포를 날렸지만 이 점수를 끝으로 KIA의 침묵은 계속됐다.

불펜의 난조도 노출됐다. 7회 최지민이 3명의 주자를 연달아 내보내면서 진땀을 흘리면서 1실점했고, 마무리 정해영은 9회를 실점 없이 막았지만 연속 안타로 무사 1-2루에서 경기를 이어갔다.

주루사도 남았다. 7회 1사 1루에서 박찬호의 타구가 3루수 클라브로 빨리 들어갔고, 스타트를 끊었던 1루 주자 윤도현이 아웃됐다.

공수주에서 무기력한 패배가 계속되면서 관중석 분위기도 달라졌다. 이날 경기장에는 6782명이 입장하면서 올 시즌 최소 관중을 찍었다.

결국 경기가 끝난 뒤 이범호 감독은 선수단을 소집해 '경고'를 했다.

이범호 감독은 18일 한화전에 앞서 “경기하면서



하루에 1경기는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한다. 누구든 안일한 플레이를 한다면 어떤 선수든 과감하게 뺄 것이다. 선수들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경기에 임해야 한다. 선수들이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며 “올해가 끝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상황에서 그런 선수가 발생하지 않게 준비를 하겠지만, 선수들 생각에 변화를 줘야 한다. 하루에 1경기는 최선을 다한다는 이런 마인드를 바꿔줘야 밑에 순위로 내려오지 않고 위에서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선수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20~30분 정도 (미팅을) 진행했고 제대로 된 플레이를 해 달라고 선수들과 이야기를 했다. 이런 경기, 플레이 용납할 수 없으니 남은 경기 더 정신차리고 하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플레이를 하면 내년도 없으니 남은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마인드로 바뀌달라고 했다”며 “어떤 경기에 나가서도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하는 게 선수가 해야 할 일이다. 그 경기에 맞춰 준비하는 게 선수들의 몫이다. 새로운 마인드로 준비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부상 속 위기관리에도 아쉬움을 남기면서 ‘다펜딩 챔피언’ KIA는 5강 탈락을 눈앞에 두고 있다. 팬들은 결과보다 과정에 더 아쉬워하고 있다.

사령탑의 목소리가 박수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10번째 우승에 도전하는 HL 안양 아이스하키팀.

<HL 안양 제공>

“통산 10번째 우승 도전”...HL 안양, 아시아리그 4연패 시동

20일 아이스하키 정규리그 개막

한국 유일의 남자 아이스하키 실업팀 HL 안양이 아시아리그 통산 10번째 정상 등극과 4시즌 연속 통합 우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 사냥에 나선다.

백지선 감독이 이끄는 HL 안양은 2025-2026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정규리그 개막 시리즈 3연전을 치르기 위해 19일 일본으로 출국한다.

상대는 닛코 아이스벅스이며, 20일 오후 2시 일본 도치기현 닛코의 기리후리 아레나에서 첫 경기를 시작으로 21일과 23일 같은 장소에서 연이어 맞붙는다.

HL 안양은 아시아리그 최다인 9차례(2010, 2011, 2016, 2017, 2018, 2020, 2023, 2024, 2025) 챔피언에 오를 자타공인 최고 명문 구단이다.

특히 최근 세 시즌 연속 정규리그 1위와 플레이

오프 우승을 모두 차지하는 통합 우승을 달성하며 압도적인 기량을 과시했다. 올 시즌 목표 역시 ‘우승’이다.

하지만 목표 달성까지의 길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지난 시즌 종료 후 10년간 골문을 지킨 맷 돌턴을 비롯해 이영준, 박진규, 김원준이 은퇴했고, 지효석과 유범석은 병역 의무로 팀을 떠나는 등 전력 누수가 컸다.

주축 선수들의 이탈에도 HL 안양 선수단은 강한 자신감을 보인다. 여러 번 우승을 통해 다져진 ‘위닝 멘탈리티’가 팀에 깊숙이 자리 잡은 덕분이다.

HL 안양은 코로나19로 리그가 중단됐다가 재개된 2022-2023시즌부터 세 시즌 연속 통합 우승을 차지했다. 이 과정에서 이주형, 김건우, 남희두 등 젊은 선수들이 팀의 주축으로 성장하며 성공적인 세대교체를 이뤘다.

돌턴이 떠난 주전 수문장 자리는 이연승이 맡는다.

백지선 감독은 “걱정 어린 시선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21명의 선수는 모두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됐다”며 “특히 선수들의 정신적인 준비는 내가 팀을 맡은 이후 최고 수준이다.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승리하는 것이 HL 안양의 멘탈리티”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팀의 베테랑인 김상욱과 이돈구는 대기록 달성을 눈앞에 뒀다.

김상욱은 아시아리그 통산 최다 공격포인트(572개) 경신에 도전하고, 이돈구는 한국 선수 최다 출전 기록(450경기)을 넘어설 예정이다.

2025-2026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는 HL 안양과 일본 5개 팀이 참가해 팀당 40경기의 정규리그를 치른 뒤 상위 4개 팀이 플레이오프를 통해 챔피언을 가린다.

/연합뉴스



전남도체육회, 한·일 생활체육인 친선교류

‘일본스포츠마스터즈’ 행사

전남 생활체육인들이 ‘2025 일본스포츠마스터즈’를 통해 일본 생활체육인들과 우정을 나눈다.

전남도체육회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일본 에미메에서 열리는 ‘2025 일본스포츠마스터즈’에 153명의 생활체육동호인을 파견한다.

이번 행사는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배구, 볼링, 소프트테니스, 연식야구, 농구 등 총 8개 종목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전남 선수단은 18일 ‘이마바리 국제호텔’에서 열리는 일본스포츠협회 주최 환영연을 시작으로

개회식(19일), 종목별 대회(20~22일)에 참가한다.

선수의 경쟁을 하면서 스포츠 정신을 나누게 되는 이들은 일본 생활체육 현장 체험, 문화 탐방 등을 통해 우정과 화합의 시간도 갖는다.

한편 한국과 일본 생활체육 동호인은 1997년부터 한일생활체육교류 행사를 갖고 우정과 체육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파견은 지난 4월 목포에서 열린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과 연계해 진행된 제29회 한일 생활체육교류의 일환으로 일본스포츠협회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김여울 기자 wool@

북한,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참가 의향...팀 ‘코리아’ 가능할까

선수단 270명 파견

북한이 내년 9월 19일 개막하는 2026년 아이치·나고야 하계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함에 따라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끝으로 명맥이 끊긴 남북 선수단의 국제종합대회 공동 행진이 재개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체육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6일이 제출 마감 시한이었던 수엔트리(종목별 대표선수 숫자)를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 제출했다.

북한은 축구 등 17개 종목 선수 150여명을 포함해 총 260~270명의 선수단을 파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도 41개 전 종목에 1400여명의 선수단을 파견하겠다는 수엔트리를 조직위에 냈다.

조직위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일본 나고야에서 참가국 선수단장 회의를 열어 대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전달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탄도 미사일 발사 등에 독자 제재로

북한 국적 보유자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아시안게임은 국제 스포츠 행사여서 북한이 원하면 참가하는 데 큰 장애가 없다.

북한 선수단의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참가가 예상됨에 따라 남북 선수단의 개·폐회식 공동입장 기대도 품을 수 있게 됐다.

남북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을 시작으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2003년 아오모리 동계 아시안게임, 같은 해 대구 유니버시아드, 2004년 아테네 올림픽, 2005년 마카오 동아시아게임,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같은 해 도하 아시안 게임에서 화합의 행진을 벌였다.

2007년 창춘 동계아시안게임까지 이어지던 공동입장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그해 베이징 올림픽부터 중단됐다.

하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이듬해 안방에서 열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같은 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남북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동시 입장했다.

그러나 2020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는 남북이 개

회식 공동입장과 4개 종목 단일팀 구성에 합의를 이루고도 북한이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이어 윤석열 정부 시절이던 2023년 개최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작년 파리 올림픽 때는 북한이 선수단을 파견했음에도 남북 공동입장은 이뤄지지 않았다.

새 정부 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남북 관계 복원을 최우선 대북정책으로 내걸면서 스포츠가 화해 무드 조성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참가 예정인 내년 아시안게임에서 남북이 중단된 선수단 공동입장을 성사할지 더욱 주목받게 됐다. 남북 단일팀 구성이 다시 실현될지도 관심거리다.

남북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에서 단일팀을 이뤘고, 같은 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도 여자농구, 카누, 조정 등 3개 종목의 단일팀을 구성해 ‘코리아’의 이름으로 참가했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행복한 꿈으로 물들다

천영록

GAC 전시지원 공모전시

행복한 꿈으로 물들다 : 천영록 개인전

일시 : 2025-09-19(금) ~ 2025-10-26(일)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광주시립교향악단 399회 정기연주회

'Fall in love with Opera'

일시 : 2025-10-17(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41